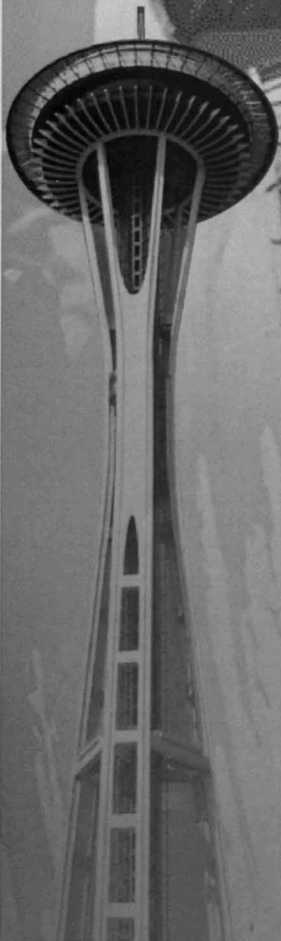


2010

한인회보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시애틀 한인회 홈페이지 • www.wakaa.org



SBA LOAN

단 1% 가능성이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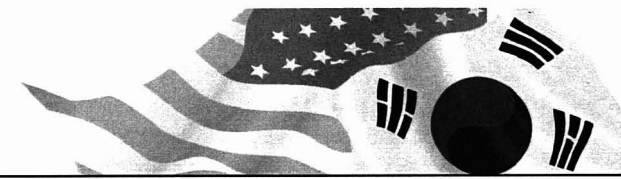
- 빠른 대출 심사
- 철저한 고객 서비스
-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SBA팀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데 대출이 고민이라면 지금 PI Bank 지점으로 연락 주십시오.

(Loan approval is subject to underwriting.)



2008년, 2009년 2년 연속
서북미 SBA LOAN 1위



KOREA-U.S. TRADE PARTNERSHIP
KORUS FTA: 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 Creation

< 한미 FTA 비준 촉구를 위한 풀뿌리운동 >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미 FTA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 한미 FTA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및 한미 양국간 동맹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미 FTA를 빨리 처리해 주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내용

- Action Center (<http://act.koreauspartnership.org>)에 등록하시면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한글 및 영어로 안내)

www.koreauspartnership.org

- 각종 통계 (한미 FTA가 주는 혜택(주별 및 산업별))
- 기본 자료 (한미 FTA 협정문 등)
- 한미 FTA에 관한 뉴스

한·미 FTA가 재미동포에게 주는 혜택(요약)

- 첫째, 한·미 FTA는 1953년 상호 방위조약이후 가장 중요한 양국간 양자조약으로서 한·미 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격상시켜 양국간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게 될 것입니다.
- 둘째, 한·미 FTA는 한국인과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미국사회내 동포사회의 위상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 셋째, 한·미 FTA는 미주동포들에게 모국과의 교역·투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섬유·의류·승용차 등 우리 동포들의 수요가 많은 한국산 제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동포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 넷째, 한·미 FTA는 양국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증진을 가져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한인 2세대들에게 모국과 관계된 새로운 고용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다섯째, 한·미 FTA는 양국의 문화 및 인력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아시아에서 한류의 붐을 일으킨 우리의 문화가 미국에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 동포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우리 동포사회가 미국사회내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아리랑밤 순서

(제1부 : 정기총회, 제2부 : FTA 설명회, 제3부 : 아리랑 밤, 제4부 : 한국 항공권 추첨)

제 1 부 정기총회

사회 : 수석부회장 서 용환, 최영자

개회사	사회자
국민의례	다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 선열과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사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미국 국가	워싱턴주 음악협회
애국가	다같이
개회기도 (Community Church of Seattle, Rev. David Song)	송영세 목사
회장인사 (President of Seattle WA St. Korean Asso.)	이광술 회장
이사장인사 (Chairman of Seattle WA St. Korean Asso.)	임광희 이사장
축사 (General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룡 총영사
축사 (President of Tacoma Korean Asso.)	장석태 회장
축사 (Washington State Senator)	신호범 상원의원
축사 (Washington State Representative)	신디류 하원의원
축사 (Senator Maria Cantwell)	Stephen Yim
축사 (King County Council Chair)	Bob Ferguson
축사 (King County Deputy Executive)	Fred Jarrett
축사 (From 2011-Mayor of Federal Way City)	Skip Priest
축사 (Chairman of U.S. Korean Asso. NW Chapter)	박태호 회장
축사 (Former President of Seattle WA St. Korean Asso.)	박태호 회장
총회 성원보고	사회자
총회 개회선언	회장
업무보고	KOAM TV 제공 동영상과 함께 서용환 수석 부회장
재무보고	신제니 재무부장 (부회장)
감사보고	박성수 CPA
감사패 증정	사회자
장학금 전달식	회장
폐회 선언	회장

제 2 부 : FTA 설명회 및 서명

FTA 설명회	주시애틀 총영사관	최영환 영사
FTA 서명	각자 Table 비치된 자료 서명	다같이



제 3 부 : 송년 만찬 및 아리랑의 밤

사회자 : 이습 (가수)

만찬(식사기도)	다같이
만찬 사물놀이 공연	워싱턴주 만찬 사물놀이팀 황의선 회장
사계절 무용단	김수아 원장
보이스그룹 공연	보이스그룹 가수팀 & 서정우, 유나 유흥근 단장
UW 학생회	2010년 UW 장기자랑 최우수 수상자 김중현 회장
실버대학 무용팀	지도교수 이화영
태권도 시범	황선두 태권도 황선두 사범
음악회 협회	워싱턴주 음악인 협회 이수진 회장
21세기 한국 인기가수 이습	가수 이습
7080 인기가수	가수 태원
4중주	Sharon

제 4 부 한국 항공권 추첨 및 경품권 (약 3,000)추첨

사회자 : 가수 이습

한인회 기금모금 \$110 상당 상품권 판매 \$100 : 구입 희망자 손들어 주세요

* 24피트 보트 침대시설 구비 Action

- 1992년도 구입가격 약 \$25,000 별로 사용 아니한 것임
- 2010년형 같은 사이즈 약 60,000 주어야 함
- 보트 운반하는 트레일러 (약 \$3,000상당)도 포함한 가격임
- 수리비와 기타 비용 (구입자 본인비용)

* 한국 왕복 항공권 Auction (Tax는 구입자 부담 입니다)

* 경품추첨 20명 상품권 (약 \$100 상당)

- 전진 회장님 또는 각 단체장님이 추첨

* 한국 왕복 항공권 추첨 아시아나 항공사 대표 추첨

- Tax는 당첨된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한인회비 시간이 없어서 못내신분 동봉한 봉투를 이용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연말 잘 보내시고 2011년 새해에 온가정에 건강과 행운과
 주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이광술 이사장 임광희
 임원 이사 일동 올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제 41대 임원 이사 명단

2010년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단			
회 장	이 광 술	이 사 장	임 광 희
명 예 회 장	김 기 현	수 석 부 이 사 장	방 석 문
수 석 부 회 장	서 용 환	총 무 이 사	최 영 자
부 회 장	신 제 니		
지 회 장 (린우드)	안 득 찬		
지 회 장 (페더럴웨이)	홍 정 자	법 률 부 장	김 은 영
지 회 장 (벨뷰)	전 은 주	법 률 부 차 장	박 정 남
사 무 총 장	박 기 범	교 육 부 장	최 석 규
사 무 차 장	한 호 정	문 화 부 장	한 정 열
섭 외 부 차 장	성 유 영	문 화 부 차 장	이 윤 정
섭 외 부 차 장	박 정 남	봉 사 부 장	김 재 포
교 육 부 차 장	성 유 영	한 국 무 용 부 장	에 스 더 김
재 무 부 장	신 제 니	체 육 부 장	손 창 락
재 무 차 장	제 키 한	경 로 부 장	손 현 주
행 사 부 장	박 기 범	사 진 보 도 부 장	채 성 호
홍 보 부 장	이 성	청 년 부 장 UW	김 종 현
사 회 복 지 부 장	김 병 섭	청 년 부 차 장 UW	이 준 혁
여 성 부 장	한 한 나	전 통 문 화 부 장	홍 성 권
여 성 부 차 장	김 혜 주	전 통 문 화 부 차 장	홍 지 나
편 집 부 차 장	김 동 욱	기 획 부 차 장	이 정 하
편 집 부 차 장	김 은 진	기 획 부 차 장	설 미 영
감 사			
재정감사 : 박성수 / 행정감사 : 서영민			
회관건물 관리부			
부장 : 김 기 현 / 차장 : 이 영 조 / 관리 : 서 용 환 / 재무 : 제 키 한			
위원 : 임 광 희, 안 득 찬, 박 기 윤, CPA, 변호사			
행사준비 위원장			
한인의 날 행사준비 위원장	시애틀/타코마/벤쿠버/스포켄/한인회 & 한미재단		
Sea Fair 행사 위원장	방석문, 재미재포, 전은주, 최영자, 이종식, 한호정		
한국전통 문화예술포럼 위원장	한정열, 에스더김		
독도 홍보 위원장	홍승주, 김종현, 이준혁		
사랑의 골수 기증 위원회	유진규, 김기현		
아리랑의 밤 행사 위원장	홍정자, 박정남, 한호정, 김재포, 이성, 김은영		
고문 / 법률고문 / 명예고문 / 자문위원 / 상임이사 / 자문이사 / 이사			
고 문	이현기, 신호범, 조성욱, 정철식, 강동언, 오계희, 오준걸, 박태호		
법률고문	정상기		
명예고문	김승리, 백봉현, 이민구, 최 훈, 허 명		
자문위원	윤광남, 최주찬, 한원섭, 박종세, 김석민, 강희열, 민학균, 강석동, 유철웅, 이영조, 김준배, 홍승주, 서영민, 김기현, 최기선, 주완식, 박태수, 성석영, 주디문, 손욱봉, 정상균, 황의선, 조성욱, 조민호, 김학병, 장부관, 함재명, 최지연, 지은정		
상임이사	임광희, 방석문, 이영조, 서용환, 신제니, 안득찬, 홍정자, 김기현, 박정남, 이광술		
자문이사	강봉수, 권 정, 고봉식, 김건영, 김영일, 김현길, 김정부, 김준성, 김수영(CB), 김수영, 박영민, 민명기, 샌드라, 손동학, 웨리송, 신광수, 신금옥, 신디류, 신춘호, 심상연, 유근열, 유니스정, 유진규, 엄도승, 이동립, 최경수, 이백현, 이수잔, 이종화, 임성빈, 장진식, 정문호, 정정이, 최기선, 주완식, 박태수, 성석영, 주디문, 손욱봉, 정상균, 황의선, 조성욱, 조민호, 김학병, 장부관, 함재명, 최지연, 지은정		
이 사	강태식, 김기현, 김동욱, 김성훈, 김순아, 김승애, 김은영, 김재포, 김건영, 김예주, 김정금, 박기영, 박재동, 박정남, 방석문, 서용환, 성유영, 손동학, 손현주, 신제니, 안득찬, 방희영, 에스더김, 유상재, 유홍근, 이광술, 이미숙, 이영조, 이용일, 이윤정, 이창래, 이 성, 임광희, 장송욱, 장욱현, 장홍석, 장태수, 장현식, 재키한, 전은주, 채성호, 최영자, 홍정자, 한호정, 한정열, 한하나, 허남일, 홍승주, 홍종일		

송년 인사 및 2011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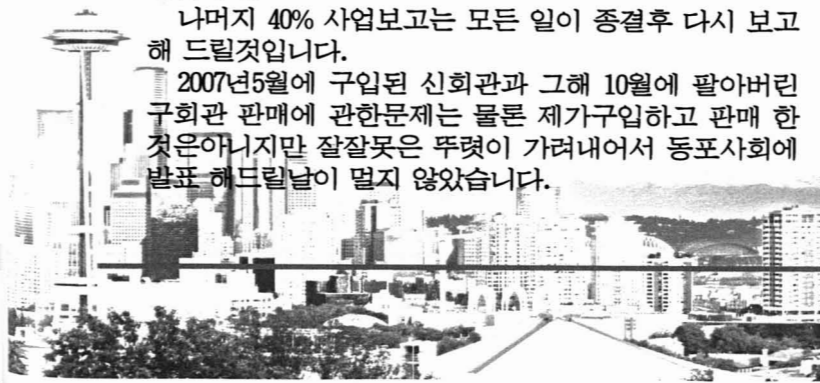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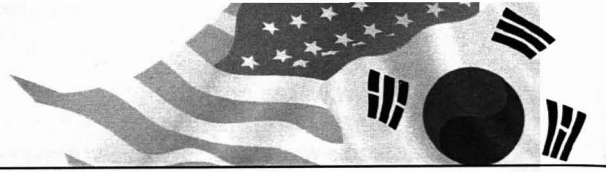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이광술

존경하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동포여러분

2010년 한해동안에도 불경기를 극복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창립 4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역대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이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감하는 한인회 아리랑밤 및 총회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해를 뒤돌아보며 힘들었던일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일만 간직하여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경기회복을 기대하면서 건강한 동포사회가 될수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금년에도 우리 한인회에서 각종사업을 성황리에 마칠수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히 100년만에 닥친 불황에도 우리 동포사회 권익신장과 차세대를 위한 각종사업에 혼신을다하여 우리 임원, 이사님들과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는 아직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생각보다는 잘진행 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염원이었던 다목적 회관건립문제는 생각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속에서 차근 차근 해결하느라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이런상황에서는 그어느누구도 견디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저는그동안 개인사업을 쳐 버리고 한인회 이익과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하여 그동안 3년이란세월을 앞만 보고 희망을 갖고 뛰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회보속에 실린 사업보고서를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한 사업보고 내용은 실제의 60% 정도 보고 드린 편입니다.
 나머지 40% 사업보고는 모든 일이 종결후 다시 보고 해 드릴것입니다.
 2007년5월에 구입된 신회관과 그해 10월에 팔아버린 구회관 판매에 관한문제는 물론 제가구입하고 판매 한것은아니지만 잘잘못은 뚜렷이 가려내어서 동포사회에 발표 해드릴날이 멀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잘못되었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니 그 해결점을 기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었고 앞으로도 또 노력 할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는것보다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한인회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목적 회관만 계획할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교육센터와 전통문화센터 그리고 차세대와 다민족을위한 한글교육과 나날이 늘어나는 노인회에 관한 중점적인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중입니다.
 지난10월 King County 군수와 군의원을 만나 다목적 회관을 위한 문답은 학교와 노인회와 한글학교에 지원할 버스 또는 벤 차량지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한인사회와 미주류사회 유대를 더욱 강화 할것입니다.이렇게 어려울때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분열보다는 합심단결하여모든 문제점은 우리모두가 책임이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것을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워싱턴주 한인동포사회 목소리가 하나의 한인회로 한목소리가 날때 우리는 분명히 주류사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우수한 민족이 될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시애틀에서는 신호범 주상원의원과 신디류 주하원의원이 탄생한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목소리를 낼때는 우리 한인 동포중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의원이 탄생하고 나아가 미국 대통령이 탄생할것을 저는 꼭 희망 합니다.그때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설것입니다. 제가 2008년제40대 한인회 출범시부터 변함없이 계속 함께봉사해 주신 우리임원 이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남은 과업을위하여 더욱더 분발하여 후세 역사에 길이남을수있는 제41대 한인회가 될수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지난 3년동안 변함없이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발전을위하여 협조해주신 모든 동포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과 년말 잘 보내시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한인동포여러분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4일





아리랑의 밤을 맞이하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임 광 희 이사장

해마다 찾아오는 아리랑의 밤이지만 금년에는 참으로 뜻깊은 우리 시애틀 우리 동포들의 밤입니다. 이곳 시애틀에는 역사에 길이남을 워싱턴주 상, 하원 의원에 우리 한인이 선출 되었습니다. 이는 크게 축하할 일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한인들이 미 정계에 진출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으며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향상했고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도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 되었는데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것은 우리가 IT 강국 으로 인정 받은지 이미 오래이며 이것 역시 G20에 버금가는 국제 행사로서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하게될것 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4대강 개발사업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데 야당에서는 정략적으로 반대를하여 약진하는 속도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과 화합 단결 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애틀 동포 여러분, 작년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참고 견뎌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리며 새해에는 한미간 FTA 타결이 이루어져 양국간에 경제 고속 성장에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포들 가정에 인내와 고통 뒤에 찾아오는 그 희열을 체험 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0년 12월 4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이사장 임광희



아리랑의 밤 축하



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 SEATTLE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계법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스한 것이 그리운 시기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랑의 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노고가 크신 동포분들을 위무하는 행사를 갖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어려웠던 한해를 보내는 시기이기에 더욱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은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겨울이 주는 은혜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겨울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을 겪어나면서 더 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시간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려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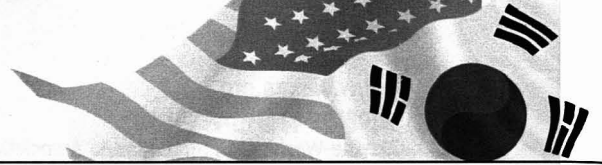
'아리랑의 밤' 송년행사가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과 사랑이 넘치고 밝은 한인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오늘 '아리랑의 밤' 동포사회 모든 분들이 한해를 보내는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준비를 다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즐겁고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동포사회를 위해 '아리랑의 밤' 준비에 온갖 노고를 다 바치신 이광술 회장님, 임광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나은 희망찬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2주년 정기총회 및 아리랑의 밤 축하

안녕하십니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남문기입니다.

제42주년 시애틀 워싱턴주한인회 정기총회 및 아리랑의 밤행사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활동과 교육센터 운영등 시폐어 행사를 통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리는 일등 한인동포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 애써주신 이광술 회장님 및 임원진들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인(庚寅-호랑이)년이 가고 신묘(辛卯)년이 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신묘년 토끼띠의 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진심어린 새해 소망과 꿈을 키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앞으로 서북부지역 한인회의 귀감이 되고 한인 동포사회의 단합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인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는 동포 각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 동포사회를 결집시키는 한인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한인 동포의 권익신장은 물론 더 많은 한인 2세들이 주류사회 진출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밝아오는 2011년 신묘(辛卯)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좀더 많은 일들이 여의히 성사되어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42회 정기총회 및 아리랑의 밤 행사를 축하 드리며, 본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내·외빈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12월4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 회장 남 문 기

아리랑의 밤 축하

CHRISTINE O. GREGOIRE
Governor



STATE OF WASHINGTON

OFFICE OF THE GOVERNOR

P.O. Box 40002 Olympia, Washington 98504-0002 (360) 753-6780 TTY/TDD (360) 753-6466

Greetings from the Governor

December 4, 2010

I am pleased to extend warm greetings to all of those attending Arirang Night, hosted by the Seattle Korean-American Association.

Tonight's event is a wonderful reminder that diversity is one of our nation's greatest strengths. I count it a privilege to have vibrant ethnic communities contributing to the social, artistic, and economic vitality of Washington, and I am thankful for the part each of you plays in establishing a rich cultural heritage in our state.

I applaud the Seattle-Washington Korean-American Association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Their ongoing efforts to celebrate diversity and promote cultural awareness strengthen our communities and truly enrich us all.

Thank you for coming, and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time of celebration and fellowship.

Sincerely,

Christine O. Gregoire
Governor



Rob McKenna
ATTORNEY GENERAL OF WASHINGTON
1125 Washington Street SE • PO Box 40100 • Olympia WA 98504-0100

November 30, 2010

Kenny KwangSul Lee, President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200 South Angelo Street, #2
Seattle, WA 98108-2704

Dear Mr. Lee:

I was extremely honored to receive your personal invitation to the annual Arirang Night celebration party on December 4, 2010. I deeply regret that a prior commitment that evening prevents me from joining you.

Although I am unable to attend this event, it is with great joy that I extend warmest wishes as you commemorate the 43rd anniversary of the form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here in the state of Washington.

Through the years, I have been privileged to make many friend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 appreciate the warm welcome I've received. Both personally and as Attorney General, I am grateful fo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pecial events and occasions that celebrate the rich Korean heritage, culture and traditions.

The Korean community is a strong and industrious population here in Washington and across America, vitalizing our economy, strengthening our democracy and bringing cultural enrichment to our cities and towns. Your energy, determination and patriotism are great sources of pride for our entire nation.

Thank you again for your kind invitation. Please accept my very best wishes for a healthy, peaceful and prosperous new year.

Sincerely,

ROB MCKENNA
Attorney General



Washington State Senate

Olympia Address:
407 Legislative Building
PO Box 40421
Olympia, WA 98504-0421
Phone: (360) 786-7640
Fax: (360) 786-1999

Senator Paull H. Shin, Ph.D.
21st Legislative District
Vice President Pro Tempore

District Office:
19707 64th Avenue West, Suite 207
Lynnwood, WA 98036-5958
Phone: (425) 673-1393
Fax: (425) 774-6932
E-mail: shin.paull@leg.wa.gov

December 4, 2010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you on the 43rd Anniversary of the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in particular on the Arirang Night celebration. During these year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benefited much from the outstanding work of the organization, as it worked to bring the Korean American and mainstream communities closer together. It is fitting to celebrate this festivity and I am pleased that you are taking the lead to organize such a celebration.

I especially want to thank the current leadership for their hard work over these past three years, as we reflect on what we've accomplished this year, and plan new beginnings for the coming year. The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hould be proud of its work to organize the event. I know all those in attendance will be delighted with the performances and I hope they will go away with a renewed sense of vigor and optimism.

Congratulations to all those involved in Arirang and best of luck for a prosperous and successful new year.

Sincerely,

Paull H. Shin
Washington State Senator
21st Legislative District



2010년 아리랑밤 송년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포사회 모든 여러분, 총영사님, 한인회장님, 임원이사님, 한 * 미 지도자, 각 언론사 대표님, 각 사회 단체장님:

Greetings to fellow Korean community members, leaders, Consul General, President Kenny Lee, Advisory Board members, and honored guests: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창립 43주년 기념과 2010년 아리랑밤 송년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 extend my sincere and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s 43rd Anniversary. I am pleased to be with you this 2010 Arirang Night.

오천년 역사의 뿌리가 있는 우리는 모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가지로 어려운상황속에서도 친목과 단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With our roots in Korea, we remember Korean culture, the people, and our 5,000 year history by coming together each year on Arirang Night. Especially in context of economic challenges and recent political events, we gladly come together for fellowship and renewed commitment to keeping our culture alive in our adopted country.

존경하는 언론사 대표님, 한인회 임원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장님 43년이란 긴 역사를 가진 시애틀한인회가 적합한 한인회관 부지와 건물을 킹카운티내에서 곧장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the fruits of many years' labor in establishing a new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home in King County befitting its 43 years' history.

한해를 마감하는 송년의밤인 아리랑밤 행사를 통해 모국의 향수를 달래면서 즐거운시간을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Wishing you an enjoyable and memorable Korean Arirang festivities!

Most sincerely,

Cindy Ryu

Cindy Ryu, MBA

주 예비 하원 의원 썬티류 (金信姬)

State Representative-Elect 32nd Legislative District Position #1

Mayor of Shoreline 2008-2009 and First Korean American Female Mayor in USA



Snohomish County
Executive Office

Aaron Reardon
County Executive

(425) 388-3460
FAX (425) 388-3434
MS #407
3000 Rockefeller Avenue
Everett, WA 98201-4046

November 15, 2010

To the members of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nd their guests: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write to you tonight during your annual Arirang celebration.

Since its inception in 1967,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has been held in high regard and with great honor. Korean Americans have contributed to the rich diversity and economic strength of the Puget Sound and Washington. It is leaders like you that make this a place to appreciate.

I wish you a wonderful evening, and in the words of a traditional Korean Arirang, "Just as there are many stars in the clear sky, there are also many dreams in our heart."

Sincerely,

Aaron Reardon
County Executive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 L.A. 사무국: 3727 W. 6th Street, Suite 406, Los Angeles, CA 90020 • info@koreanfedus.org • Tel. 213-234-9191 • Fax. 213-234-9192

문서번호: 미총22-09-3-31
 수 신: 6개 지역 한인회연합회 및 11개 도시 지역한인회 회장 제위
 발 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제 목: 신규 설립 한인회 건
 참 조: 미주총연 자문위원장
 날 짜: 2009년 3월 31일

미주 한인동포사회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각 지역 한인회 연합회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각 지역 연합회 및 11개 도시 지역 한인회의 전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국회를 통과한 후 세계 각 지역 한인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면서 미주 역시 기존의 한인회의 행정 구역을 무시한 채 같은 County 나 City 내에 새로운 한인회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염려되어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각 지역 연합회 회장님들께 이에 대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입장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한인회가 그 지역의 한인들을 대표하는 자생적 단체이긴 하지만 30년이 넘는 미주총연의 역사와 전통속에 현재 6개 지역연합회와 163개 지역 한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연합회는 그 연합회가 관할하는 주의 지역한인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미주총연의 현황입니다.

250만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총연의 대내외적 위상 정립을 위해 참정권 부여에 따른 특정 단체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한인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한인회는 인근 해당 지역 기존의 한인회의 동의와 해당 지역 연합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미주총연에 정식 지역 한인회로 등록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각 지역 연합회 및 지역 한인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정부 주최 연례 행사인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초청 규범에도 저촉되는 측면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김 승
 이사장 서 영
 사무총장 김 길



진화하는 금융상품 따라잡기

U&T 캐피탈 매니지먼트, 장용석 공동대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2년전 가을, '균형있는 재산 증식과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란 모토를 내 걸고 U&T를 설립했습니다. 독립적인 기업명은 U&T이지만 U&T는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의 자랑할 만한 금융상품만을 취급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것, 그냥 광고문구라고 여겨질 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 커뮤니티에 새롭고 다양한 투자기회, 자산보호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슬로건입니다.

금융대란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안 고객들은 물론 금융전문가, 금융기관들 또한 투자환경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한 투자위기를 극복할 만한 방법들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산투자를 늘 주장해 왔지만 그들의 말을 따라 분산투자를 실천해 온 투자자들조차 투자손실을 경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반성하면서 금융상품들이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갔습니다. 그 진화의 방향은 진정한 의미의 분산과 안전성의 확보였습니다. 한동안 극심했던 주식시장의 출렁임에 멀미를 느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렸습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안전만 하면 된다면 CD나 머니마켓으로 돈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익율을 인내하며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수익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나섭니다.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투자금액을 보장해주는 애뉴이티(은퇴연금)가 인기를 끈 것도, 주식시장과 연계되지 않은 부동산의 뮤추얼펀드, 리이트(REIT)가 각광을 받은 것도 모두 그런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한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주식시장 환경을 이용하여 특정주가가 정해 놓은 비율만큼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한 8% 또는 10%를 보장한다는 단기간(1년이하) 노트프로그램들이 세계적인 은행들에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어차피 경기회복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주식시장은 다시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 그렇더라도 만약을 위해서 뭔가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어우러져서 소위 스트러처 금융상품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인커뮤니티에 이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알려질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U&T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반영한 진화된 금융상품들을 우리 한인커뮤니티에 소개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며 포부입니다.

(문의 : 206-525-1212 장용석 또는 이정훈)



“균형있는 재산 증식과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새로운 福 많이 받으세요.

이제까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U&T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과, 정직하고 성실한 관리를 통하여 고객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증식시켜 가겠습니다.

■ 장용석 425-359-5799 / y.jhang@fgm.com

■ 이정훈 206-769-7362 (Joshua Lee) / jlee@fgm.com

전화 : 206-525-1212 155 NE 100th Street, Suite 403
 팩스 : 206-525-1313 Seattle, WA 98125

U & T Capital Management는 고객의 고유한 재정 상황에 맞는 최상의 개별화된 재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 & T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객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U & T의 사명입니다.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securities and advisory services through Independent Financial Group LLC, a registered broker-dealer and investment adviser. Member FINRA & SIPC. U & T Capital Management Inc is independent of IFG.

2010년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총회 사업 보고서

- 1월 9일(토): 제 3회 한인의날 기념식
- 1월15일(금): 제 1차 임원회 및 건축 관리위원회
- 1월16일(토): 제 1차 워싱턴주 한인 사회단체장 상견례 및 연석회의
- 1월30일(토): 조찬기도회

- 2월 5일(금): 제 2차 임원회 및 건축 관리위원회 모임
- 2월20일(토): 제 41대 취임식 및 한인회장단 이사장단 임원 이사 상견례

- 3월 1일(월): 3.1절 기념식 (시애틀 한인회/타코마한인회 공동 주최)
KOAM 공개홀에서 개최함
- 3월 3일(수): 아이티 성금 전달식 라디오 한국어(시애틀, 타코마 양한인회장단)
- 3월 12일(금): 정기 이사회 개최
- 3월 15일(월): 경남지사 남해안 시대 홍보 강연회 개최
- 3월 20일(토): 서북미 한인회장대회
- 3월 27일(토):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시애틀 지역3명 제2차 단체장 회의
한미 애국단체 회의

- 4월 1일(목): 시페어 신청서
- 4월 11일(일): 교육센터 준비모임
- 4월 15일(월): 경남지사 남해안 시대 홍보 강연회개회
- 4월 21일(수): 효도관광 출발 (35명)

- 5월 3일(월):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 간담회 (코끼리식당)
- 5월 6일(목): 스노미쉬 노인회 경노잔치
- 5월 8일(금): 신회관 문제 긴급사항 때문에 달려가다가 교통사고
- 5월 11일(화): UNI Bank 용자서류 접수
- 5월 17일(월): 시페어 실행계획서 및 어가복 지원 요청서류 제출
- 5월 18일(화): 임원 상임이사회, 건축부 연석회의
- 5월 22일(토):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 6월 6일(일): 1시: 임원회 / 3:30분 교육센터 그랜드 오픈기념식

- 시페어 모금의밤 YTN 광고 요청 실시**
 * 이날 선교교회서 이광술 공동회 참석 투표했다는 일부 교인이 거짓으로 시애틀 한인회를 모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본인 한인회장 이광술은 투표장에 참석 한적이 없다는 송천호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시간에는 이광술은 한인회관에서 임원회와 교육센터 그랜드 오픈 행사장에 있었다고 해명함. 결과 송목사님께서 일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으니 본인인 목사 잘알고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더이상 항의하지 않기로함. 다행히도 그 다음날 모든 언론사에서 교육센터 그랜드 Open한 이광술회장과 총영사님 등 단체장 참석자들과 사진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모함한 몇몇 분들은 이해가 되었음.

- 6월 12일(토): UW 졸업식 행사장 참석
-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국 방문.
한인회장대회 방문중 시페어준비물준비함
- 6월 25일(금): PI Bank 용자서류 16가지 제출 (이진원 지점장에게)
- 6월 26일(토): 재미한국학교 모금의밤 격려사

- 7월 6일(화): 임원회 오늘부터 매주화요일 시페어 준비모임을 갖기로 함
- 7월 10일(토): 시페어모금의밤 김대중 조선일보고문특강
- 7월 13일(화): 시페어 준비모임
- 7월 16일(금): 입금 왕비 선정

- 7월 21일(수): 시페어 준비위원회
- 7월 24일(토): 재미 한국학교 총연회의모임
- 7월 31일(토): 시페어 참석 110명 25번 순위로 출전역사에 기록

- 8월 4일(수): 김영진 국회의원 한인회 방문
- 8월 6일(금):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임원회
- 8월 14일(토): 광복절 기념식 시애틀 타코마 공동주최
- 8월 15일(일): 광복 조찬기도회 (명가식당)
- 8월 16일(월): MTL 시청 미팅
- 8월 25일(수): 제11차 임원회및 건축위모임
- 8월 28일(토): UNI Bank 김영석부장에게 용자서류 다시보냄
담당자가 바뀌고 서류 분실????
8월 31일(화): 한덕수 주미대사 방문 한인회는 초청되지 않았음, 언론보도에는 부인회와 상공회의 소란?

- 9월 2일부터 교육센터 교실 칸막이 공사 (한인회 운영자금으로 공사함)
- 9월 5일(일): 공사완료
- 9월 11일(토): 천주교 바자회 참석 축하
- 9월 19일(일): 신회관 정원 시청 경찰로부터 경고장 3일간 정비완료함
- 9월 22일(수): 한아름 마트와 아리랑밤 후원 미팅
- 9월 24일(토): 통합 노인회 추석잔치 참석 축하
- 9월 29일(수): 임원회

- 10월 4일(월): 임광희 이사장님과 킴카운티 군수와 회관 문제 상담. 6가지 건의사항 모두 긍정적인 답장을 받았음
- 10월 6일(수): 효도관광 75명 출발
공항 환송식 (임광희이사장 흥정자 지회장 이광술 회장 참석)
한인회에서 준비한 겨울 Jacket 제공
- 10월 7일(목): Uni Bank 용자 땅 재조사 요청에 관한 면담. 벨링햄에서 지회 설치 요청 서신에 대한 회장단 논의
- 10월 8일(토): 하반기 제2차 정기이사회
벨링햄 지회 설립안 만장일치로 통과
벨링햄에서 이사 4명 신청 접수함
- 10월 9일(일): MTL회관의자50개 교육센터 학생을위한 준비
- 10월 13일(수): 제4회 한인의날 준비위원회 모임참석 축하
- 10월 14일(목): 중앙은행 창립 10주년 기념식 축하
MTL전주인 브로커와미팅 Payment중단 선언
- 10월 16일(토): 페드럴웨이 민선 시장 유력자 Skip Priest 후원회 모금해줌, 임원 약 15명 참석 모금해줌 (가든식당서) 시장 당선되면 시애틀 한인사회와 긴밀한 협조하기로 함
- 10월 20일(수): 골수기증 구좌 Charge 관계 Wave 받음 (PI Bank 로부터)
- 10월 21일(목): MTL : 소방 검열 고깃간 지붕 물세는문제 해결
- 10월 22일(금): 아리랑밤 모금 준비모임
- 10월 23일(토): 북한 김정일 3차세습제도 반대성명서 발표
- 10월 24일(일): MTL 빈자리 식당 하고싶은 사업가 보여줌
식당 장비가 없어서 장비 시설비 요구함.
- 10월 25일(월): 신회관 전주인 사랑 소식과 함께 아들과 연장이 더 힘들어졌다는 소식 다시 재 회담 추진, Uni Bank 용자소식 실망, 은행측 용자 심사끝나고 이사회에서 제동이 되었다는 소식접함

2010년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총회 사업 보고서

- 10월 26일(화): Uni Bank 용자 거절 통보받은 큰 실망, 만약을 위하여 전 주인과 Owner Carry 별금줄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함. Uni Bank 용자보다 더좋은조건으로 전주인과 타협중
- 10월 27일(수): 24퍼트짜리 보트 한인회기증한분 보트 운반 가든식당주인집에 보관하기로 아리랑밤에 경매용으로
- 10월 28일(목): 서북미 연합회 회장단 미팅 참석
이사회외 장소 한인회회관 회의장 준비함
- 10월 29일(금): 연합회 이사회
준비된 한인회 대회의장에서 진행
- 10월 30일(토): 총영사 관저에서 오찬회의참석
- 10월 31일(일): 실버대학 UW Meany Hall 공연 참석(자녀운)

- 11월 1일(월): 아리랑밤 준비모임
- 11월 2일(화): 신회법 주상원의원 4선 개표결과 사무실 방문. 신디류 주하원의원 초선 개표상황실 방문
- 11월 3일(수): Owner Carry 주인과 브로커와 다시 총들, 6개월마다 벌금 문제로 더이사 Payment 못한다 신회관 도로가져가라고 협박하였음
- 11월 4일(목): 아리랑밤행사 준비 제4차 모임과 임원회 제13차모임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님 환영준비모임
신회법 상원의원 당선 기념식 축하
- 11월 6일(토): Veterans Day Parade 참가
비블맞고 행진에 참석 (6.25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태권도팀)
- 11월 6일(토): 한인 부부 봉사팀 모임 참석
- 11월 7일(일): 아리랑밤 준비위원회 교회 성환철 전도사팀과 현장 준비모임
- 11월 10일(수): 상공회의소 주최 FTA 강연회 참석 축하
- 11월 11일(목):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님 환영만찬과 동포간담회 한인회 주최, 아리랑밤 준비모임
- 11월 12일(금): 총재님과 조찬미팅 한인회 간부들과 만남, 공항 환송
- 11월 13일(토): 한미 여성회 주최 입양아 행사 참석 (형제교회)
- 11월 15일(월): 아리랑밤 초청장 편지 발송 250명
- 11월 16일(화): 구회관 판매 문제전 변호사와만남 공동위원 3명과 함께
- 11월 17일(수): 전주인과 (MTL) 브로커와 다시 대화시작
아리랑밤 준비모임 제 15차 임원회겸 Owner Carry 서류 임광희 김기현 이광술 서명함. 벌금 50% 줄이고 이자 10%에서 7%로 내리는 문제서명 제출함
- 11월 19일(금): 15일 부터 이광술 개인 이사를 해야하나 한인회 일관계로 추력만 빌려두고 사용못함 오늘부터 조금씩 이사. 새로운 주소: 22714 42nd PL, South Kent WA 98032로
- 11월 21일(일): 이사완료 눈이오기시작 함
- 11월 22일(월): 연평도 북한 공격사건접하고 임원이사 비상연락함
신회관 시청에서 파킹장 눈치우라는 지시 받아 대처함
- 11월 23일(화): 연평도 사건 북한 규탄 성명서 발표 시애틀/타코마. 양 한인회 공동 성명서 각언론사 발표함
- 11월 24일(수): King 5 TV에서 북한 공격사태 인터뷰요청. 한인회관에서 실시함
- 11월 27일(토): 2:00PM 아리랑밤 준비모임및 임원회
5:00PM 청우재단 송년회 한인회에서 10명 참석함

- 7:00PM 음악협회 주최 서해경 피아니스트 공연 참석(6명)
- 11월 29일(월): 아리랑밤 준비위원 실무자 모임
아리랑밤 참석자 명단 최종점검 논의
한인회보 마감준비 썬프린트사와 최종 점검. 행사 준비사항 35가지 모두 점검함으로써 12월 실시할 예정인 아리랑밤 준비에 마지막 5일전 준비에 박차를 가함

위와같이 11월 29일까지 2010년 한인회 활동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혹 오타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광술회장 재임기간중 한인회를 위하여 Save한 금액은?
 2008년 2월: 2007년 회관 구입 판매에 관한 세금 \$200,000, 8개월동안 박성수 회계사와 논의하여 IRS에 접촉 끝에 면세받음
 2010년 1월: Tenant 고깃간 Lease 기간이 끝난후 가계세 2배를 올려서 재계약 했음 Income \$2,000 엑스트라 올렸음
 2010년 3월: 2009년 세금 벌금 \$ 4,600 통보받고 회계사에서 2번이상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IRS 통보받고 이광술 단독으로 3차례 IRS 고위직과 상담후면세 받음
 2010년 7월: 스노미쉬카운티서 신회관장비세부과되는 것 2차례서면으로 항의서제출과 이메일로 항의후 2009년 장비세 Refund 받고 앞으로 면세 받음 (\$400상당)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Rent 받는것 부동산 Management 약 10% 받는것 이광술 부동산 자격증으로 100% 무료 봉사, 평균 월 \$7,000 X 36 Mo. = \$252,000 X 10% = \$25,200
 2010년 1월부터 Triple net 부가했음. 고깃간 Renewal 하면서 월 \$400 X 12개월 = \$4,000
 2009년 5월부터 Owner Carry 2년 연장하면서 6개월마다 벌과금 \$12,000, 1년 그리고 \$18,000 2nd Year 인데 지난 10월부터 Payment 중단하고 투쟁중이다 약 2달동안 전주인 브로커와 6차례 주고받은 흥정중에 벌금은 \$9,000로 줄이고 이자도 10%에서 재조정 7%로 요구하고 있는중 가능성있다. 이를테면 \$9,000 = 18,000 지불할 벌금 Save하고 Plus 이자 3% Save, 앞으로 2년동안 할수있다. 약 \$40,000 가량 Save 한다

이광술 회장이 3년동안 한인회관 운영에서 번돈 (Save)
 \$200,000+\$4,600+\$24,000+\$400+ \$25,200
 \$4,000=\$30,000= \$298,200

아무리 Save를 해도 원래 구입시 Payment가 상당히 모자라는 것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저축된 자금이 모자라면 43년동안 한인회에서 적립하였던 모든 재산은 없어지기 때문. 최대한 수명 연장을 하여 잘 판매하여 일부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점. 모든 동포사회에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구입 당시 2007년도에는 Subprime 이전에 구입하였기때문에 현재는 그당시 구입한 부동산은 지금 버리고 포기하는 현실이니 당시 한인회에서구입한것은 시행착오일뿐 누구를 원망보다는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회관 판매문제와 신회관 구입 판매에 관한문제, 오염문제, 신회관 용자문제, 신회관 판매 진행문제, Owner Carry 연장문제, 매주 일어나는 일들이있지만 업무 진행상 보안관계로 위 보고드린 활동사항에는 행사 사업내역에 기입을 80% 이상 하지않았습니다. 모든 회관 문제가 해결 정리가 되면 각 언론사를 통하여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진행상 지난해 10인 공동위원회에서 결정 한바와 같이 비공개 진행하게 됨을 이점 양해 바랍니다.

2010년 사업 보고 작성자
 회장 이 광 술



비즈니스를 하던 중에 일어난 화재, 보험이 있더라도
 “어느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ALLWEST ADJUSTERS가 최고의배상을 정확·신속하고
 속 시원하게 책임지고 해결해 드립니다.
 Kyle T. Grinnell(253-896-3700)에게 연락바랍니다.

ALLWEST ADJUSTERS, INC.
 PUBLIC INSURANCE ADJUSTERS
KALE T. GRINNELL, L.P.I.A.
 PRESIDENT
 4108 57TH ST. CT. E TACOMA, WA 98443 253.896.3700
 Fax.253.896.3702
 www.AllwestAdjusters.com E-mail:dyle#AllwestAdjusters.com

청우재단
 Chung Woo Foundation

“청우재단, 동포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청우재단 단훈(團訓) 8 불우 이웃을 돕자

청우 재단이란?
 저희 재단은 청우(淸友)라는 말 그대로 사심이 없는 청풍의 깨끗한 마음과 우애가 있는 봉사와 구제의 비영리 자선 단체입니다.
 우리 2세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어려움이나 외로움으로 고생하시는 웃어른들을 위하여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하려고 청우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청우 재단 사업 계획
 1.교민을 위한 노래 잔치
 2.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생일잔치
 3.소년소녀 가장 돕기
 4.효자 효녀 효부를 위한 격려금 지원
 5.입양아 후원

• 한국어 상담가능
부설 기관
 1.연수원 운영
 2.건강식품점

» 청우재단 회원 협력 업체 명단 «
 청우재단 회원은 아래 업체에서 요금이 \$30 이상일 때, 10%~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일상품 및 보험처리는 제외)

밥집
 Sonny Bin 레스토랑 / 425-519-3646 / 14205 SE 36th St.#100 Bellevue(고흥 타운)
요식업
 삼환식당 / 253-941-8899 / 31140 Pacific Hwy S.#A Federal Way
 골재지식당 / 253-232-5008 / 9104 S. Tacoma Way, #H Lakewood
 아카사카 일식당 / 253-946-3858 / 31246 Pacific Hwy S. Federal Way
 김치 집 / 253-939-9999 / 8903 S. Tacoma Way, #3 Lakewood
 특경 중국식당 / 425-643-9030 / 14150 NE 20th St. Bellevue
 히미츠히 텀리키 / 425-882-2900 / 13112 NE 20th St. #200 Bellevue
 호순이식당 / 253-584-4572 / 8501 S. Tacoma Way Lakewood
 신촌식당 / 253-474-5445 / 6532 Pacific Ave. Tacoma
 Blue Ginger 식당 / 425-746-1222 / 14045 NE 20th St. Bellevue
 King Teriyaki / 253-959-8999 / 8820 Kimball Dr. #A-1 Gig Harbor
 보양재미 제과 / 253-892-3458 / 9601 S. Tacoma Way Lakewood
 서양화 한식당 / 425-779-4777 / 9823 HWY 99#150 Lynnwood

건강
 Steven Kim / 치과 253-584-3310 / 10614 SE Kent-Kangley Rd. Kent
 서울한의원 / 253-584-9649 / 8718 S. Tacoma Way Lakewood
 Smile Dr 치과 / 253-963-9090 / 8811 S. Tacoma Way Lakewood
 시애틀추병원 / 253-588-8340 / 9901 S. Tacoma Way #106 Lakewood
 정경록 치과 / 425-746-1441 / 1600 148th Ave. SE Bellevue
 홍서한의원 / 425-746-5691 / 15904 HWY 99 #F Lynnwood
 정산한의원 / 425-774-1535 / 8614 Hwy 99 #D Lynnwood
 한국한의원 / 425-430-1338, 253-932-3817 / 10718 SE Carr Rd Renton
 황영욱 물리치료과 / 425-742-5900 / 8911 Hwy 99 #105 Lynnwood
 한가죽 척추 의료원 / 425-741-9927 / 7410 Hwy 99 #150 Lynnwood
 맥성석으로 사는 생활 / 425-744-8072 / 9904 Hwy 99 #L Lynnwood
 아이즈이 안경 / 253-582-3998 / 8705 S. Tacoma Way Lakewood
 김민재 / 253-588-0228 / 9145 S. Tacoma Way Lakewood
 노바 안경점 / 425-742-3777 / 13710 Hwy 99 #110 Lynnwood
 유영 안경 / 253-839-0600 / 31830 Pacific Hwy S. #E Federal Way

생활
 예쁜예쁜 양복점 / 253-983-8014 / 8711 S. Tacoma Way Lakewood
 Senne 양복점 / 253-218-9441 / 2200 S. 320th St #113 Federal Way
 Beautiful 한인제선 / 253-584-2664 / 8718 S. Tacoma Way #D Lakewood
 아이비세탁(아름다운) / 253-588-8844 / 9122 S. Tacoma Way #108 Lakewood
 서울한복 이불 / 253-581-9019 / 8618 S. Tacoma Way Lakewood
 글로리 패션 / 425-745-5546 / 17424 Hwy 99 #E Lynnwood
 Wedding 1(웨딩 원) / 206-715-3810 / 23830 Hwy 99 #118 Edmonds

시뮬 패션 / 425-744-1238 / 23830 Hwy 99 #E Lynnwood
 아가네 사계 절구 선물 / 206-898-4919 17424 Hwy 99 #202 Lynnwood
 꽃의 나라 / 253-588-8844 / 9122 S. Tacoma Way #108 Lakewood
 미성가구 / 253-232-2140 / 1128 E. 72nd St. Tacoma
 워싱턴 표구사 / 253-232-2140 / 1128 E. 72nd St. Tacoma

뷰티
 한봉구 미용실 / 253-581-3383 / 9722 S. Tacoma Way, #C Lakewood
 Bae's Skin Care / 253-584-4805 / 9122 S. Tacoma Way #109 Lakewood
 힐리 Skin Care / 253-983-9555 / 9312 S. Tacoma Way #110 Lakewood
 수지화장품 / 253-686-6554 / 9122 S. Tacoma Way #109 Lakewood
 송지오 미용실 / 425-672-2159 / 23830 Hwy 99 #100-B Lynnwood
 He Moon Hye 미용실 / 425-774-9191 / 18934 Hwy 99 #E Lynnwood
 유리 사진관 / 253-576-8265 / 5406 S. Tacoma Way Tacoma
 POLA 화장품 / 360-895-0312 / 7782 Squares LK Rd. Port Orchard
 엘뷰 모닝글로리 / 425-641-9667 / 3710 Factoria Blvd SE #D Bellevue
 SM 마트 / 253-512-1102 / 8606 S. Tacoma Way Lakewood(세일상품제외)
 이화 콜렉션(합화) / 253-584-4833 / 9312 S. Tacoma Way Lakewood

모텔 및 호텔
 Red Lion Hotel / 253-548-1212 / 8402 S. Hoarmer St. Tacoma
 Golden Lion Motel / 253-589-2171 / 9021 S. Tacoma Way Lakewood
 Best Night Inn / 253-582-7550 / 9325 S. Tacoma Way Lakewood
 Days Inn(Federal Way) / 253-696-2027 / 34827 Pacific Hwy E. Federal Way
 Days Inn(타코마) / 800-221-9293 / 6202 Tacoma Mall Blvd. Tacoma
 Quality Inn / 253-935-2301 / 5601 Pacific Hwy E. Fife

자동차
 B & I Collision / 253-583-0101 / 8016 Durango St. SW Lakewood
 Ace Auto Body / 253-838-1310 / 1626 341st PL. S.#A-16 Federal Way
 Speed Auto Repair / 253-584-8399 / 9722 S. Tacoma Way Lakewood
 Japanese Auto Service / 253-539-5030 / 7505 Portland Ave. E. Tacoma
 J.S. Auto Repair / 425-640-0999 / 6326 196th St. SW Lynnwood

기타 유희(Sound) 253-334-8682
 World 테렌도 / 425-747-0773 / 14028 Bel-Red RD. Bellevue
 영스 유리 / 253-582-8128 / 8602 S. Tacoma Way #11 Lakewood
 Mr. Rooter(상하수도 수리) / 253-588-6133 / 2624 112th St. S. #B-1 Lakewood
 Family Cleaner / 425-888-3000 / 22320 NE Market Pl Dr. Redmond
 Copy Plus / 425-643-9331 / 12838 SE 40th Pl #A Bellevue
 Sun's Cleaner / 425-670-1280 / 19709 HWY 99 #K Lynnwood
 Carpet King / 425-918-1818 / 17602 Hwy 99 #F Lynnwood

Tel. 253-222-2216 E-mail:chungwoofoundation@yahoo.com
 청우재단 Chung woo Foundation / 9325 S.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건강한 순으로 세워지는 예수공동체
Expanding God's Kingdom by Strengthening Small Groups.

www.hyungjae.org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15
 4부: 오후 12:50
- 영어예배: 오전 9:30
- 영어대학: (금) 오후 7:00
- 수요일여성예배: 오전 10: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30(토)
- 중보기도: (수) 오후 8:30
- 금요기도: (금) 오후 9:00
- 순예배: 순별로 자유롭게
- SonLight(유초등부): (주일)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15, 3부: 오후 12:50
- SonLight(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수) 오후 7:15
- 중·고등부 영어 예배: (주일) 오후 12:50
- 중·고등부 한국어 예배: 주일 오전 9:30
- 중·고등부 수요일예배: (수) 오후 7:30
- 주일청년예배(다이브홀): 오후 3:33
- 1청년예배(UW캠퍼스): 오전 11:00
- 2청년부 모임: (금) 오후 7:30





Monday



Tuesday



Thursday



Saturday

차세대 첨단 항공기로 편안하게 보다 편리해진 스케줄로 여유롭게

시애틀 노선 주 4회 증편으로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모십니다

차세대 첨단 비행기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모시는 대한항공만의 특별한 배려- 여기에 시애틀 노선 주 4회 증편 운항으로 더욱 여유롭고 편리해진 스케줄까지... 이제 모국 방문, 빠르고 편안한 대한항공으로 다녀 오십시오.

곳곳에 숨어있는 섬세한 배려! 차세대 항공기의 첨단 기능과 고품격 서비스를 만나 보십시오



세계가 호평한 최고의 대한항공 서비스
• 최우수 한식 가내식 수상-2006 어워드 선정
• 최우수 가내식 2관왕-2005 팩스 리더십 어워드 선정
• ATW 퍼펙스 상-2006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선정



This certifies that

JAMES C. BUCKLEY

is a member of the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membership in which is limited to Trial Lawyers who have demonstrated

exceptional skill, experience and excellence in

Advocacy by achieving a trial verdict, award or settlement

in the amount of One Million Dollars or more



공지를 가지고 고객에게 봉사하는 저희 사무소 변호사와 직원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교통사고 · 신체상해

버클리 법률 전문가 그룹!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본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친절함 무료 상담
- 연락 당일 상담 가능
- 치료 후 2-4달내에 신속한 처리
- 근무 시간 전후 예약 가능
- 보상받는 경우에만 변호비용 요구
- 필요 시 병원 또는 지택 방문

저희 법률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고객의 손해 배상 금액으로
약 7천5백만불 을 받아냈으며, 1993년 이후로 8,000건의 배상
청구를 해결했습니다.

각 고객의 사례는 다름에 과거의 결과는 그 어떤 고객도 승소를 할 경우 어떤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원 판사 선출특별위원

버클리 합동법률 사무소

시애틀 사무실 (자이언타운) 타코마 사무실 (Wells Fargo Plaza)
675 S. Lane St. Suite 300 Wells Fargo Plaza
Seattle, WA 98104 Tacoma, WA 98402
(206) 622-1100 (253) 582-3200
1-800-404-6200
buckleyandassociates.net

일렉트릭 권 206-622-1100 페이지 리 셀: 206-909-8289



KIMWA-SEATTLE

Korean Inter-Married Women's Association



시애틀 한미여성회

Affiliated With World KIMWA

206-397-6634

E-mail: kimwaseattle@yahoo.com
4761 Fernridge LN
Mercer Island, WA 98040



2010년 1월~11월

사진으로 보는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행사의

이모저모



3.1절 행사



King County Executive Dow Constantine and CM Von Reichbauer 군수미팅 005



교육센터 개관식



어버이날 효도관광



원로골프 시상식



Skip Prist Federal way 민선시장 결선 후원의 밤



김태호 경남 도지사 방문



라디오한국 교육센터 인터뷰



이법관 의원 시애틀 방문



입양아 초청 문화 공연



정기 이사회



미주총연 서북미 연합회 정기 임원 이사회



박창달 총 시애틀 방문



서북미 연합회 총영사관저 방문



제41대 회장 이사장단 취임식



최희섭 서북미 연합회장 인사말씀



한국자유총연맹 박창달 총재 만찬



시애틀 워싱턴 주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시페어 퍼레이드 순서를 받고



시페어 행사 모금의 밤



한인 원로골프



한인사회 단체장회의



효도관광 환송회 사진 10월6일 2010년 75명

라디오한국
RADIO HANKOOK
KSUH 1450AM / KWYZ 1230AM

The 1st KOREAN SONG CONTEST FOR NON-KOREANS

TOTAL PRIZE \$10,000

UniBank 문화저널 H/MART ASIANA AIRLINES CDS KAGRO STAR TRAVEL & TOURS

APPLICATION DEADLINE
DATE: Friday, December 24, 2010
TIME: 5:00PM
LOCATION: Radio Hankook T. 253.815.1212
807 S. 336th St. Federal Way, WA 98003 F. 253.815.1913

PRELIMINARY CONTEST
DATE: Friday, January 7, 2011
TIME: 6:00PM~9:00PM

MAIN CONTEST
DATE: Saturday, January 15, 2011
TIME: 6:00PM~8:00PM
LOCATION: Knutzen Family Theater
3200 SW Dash Point Rd. Federal Way, WA 98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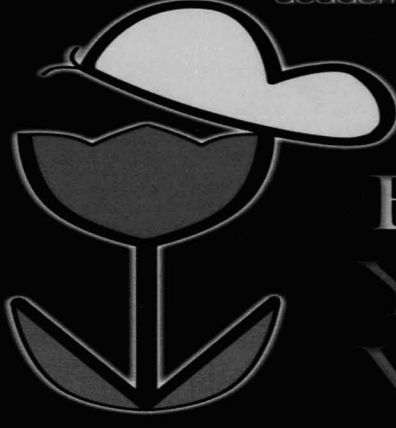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교육센터

100+ registered students from all around the Puget Sound area

A free tutor and learning center where students can reach their full potential and goals of higher education.

We strive to assist those who are struggling or wish to excel academically.



BLOOMING YOUTH VOLUNTEERS

English Grammar SAT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	Math General Math Pre-Algebra Algebra 1&2 Geometry SAT Prep Pre-Calculus Calculus AB&BC	Korean Language Culture School Work Test Prep
---	---	--

WHEN:
Every Sunday
3:00-5:00 P.M.

WHERE:
33110 Pacific Hwy S #7
Federal Way, WA 98003

For more information (206) 819-7522
Email Phillip Choe at phillichoe253@msn.com

하늘 위의 그랜드슬램

세계의 고객이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AIRLINE OF THE YEAR SKYTRAX 2010 | AIRLINE INDUSTRY ACHIEVEMENT AWARDS 2009 | 5 STAR AIRLINE SKYTRAX

아시아나항공 그랜드슬램 달성

2010 SKYTRAX 올해의 항공사
2009 ATW 올해의 항공사
2007~2010 4년 연속 5스타 항공사



*2010 SKYTRAX '올해의 항공사' 상은 전세계 1,800만 고객이 직접 뽑아주신 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꿈을 키우세요!

Uni가 도와게요.
고객의 성공을
보람으로 여기는 은행,
유니뱅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현금 관리- 체크 및 세이빙 계좌
목돈 만들기- 정기 적금
목돈 굴리기- CD, MMA
국제 송금 및 무역관련 업무
기타 예금 업무

신속한 각종 대출 업무
상업용자(주유소/모텔/식당/세탁소, 등등)
SBA상업 용자 / 장비구입용자
재용자 및 비즈니스라인용자(LOC)
자동차 용자(Auto Loan)

UniBank

고객의 성공, 유니의 보람

Tel. 425-275-9700 Fax. 425-275-9777
16929 Hwy 99 Suite 110 Lynnwood, WA 98037
www.unibankusa.com

FDIC EQUAL OPPORTUNITY SBA PCP Center



www.wakaa.org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한국 양노원

G 그린하우스

Green House Adult Family Home

주정부 인가를 받은 그린하우스 어덜트 패밀리 홈 (Green House Adult Family Home)은 한인 노인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준비된 한국형 양로원입니다.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처럼 한국 음식, 문화 정서들을 나누면서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병원 원목 경험이 풍부한 손현주 목사는 거주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 식단, 정기 진료, 응급상황 대처, 개인생활 보호, 신앙지도, 특수차량 제공 등 필요한 모든 일들을 손수 섬기면서 현재 남편 김다규씨와 함께 할머니 12명과 할아버지 6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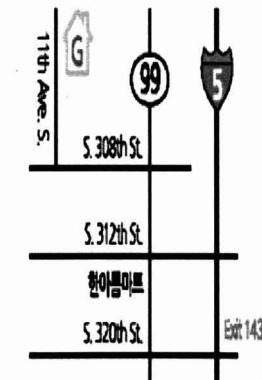


원장: 손현주 목사

- 그린하우스 어덜트 패밀리 홈 원장
- 병원 원목 다년간 헌신

그린하우스 특별 혜택과 장점!

- 1- 치과, 엑스레이, 랩데스트 등 환자들이 집에서 진찰받고 치료받습니다!
- 2- 매주 1회 이상 정규 간호원이 건강을 검진합니다!
- 3- 매주 주일 보수 교단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 4- 가정보조원 (Care Giver) 들이 2명씩 24시간 대기, 친부모님처럼 모십니다!



그린하우스 어덜트 패밀리 홈 30612 11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대한민국 연평도 북한 공격사태 관련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 워싱턴주 타코마 한인회 공동 성명서

먼저 연평도에서 전사하신 장병과 부상당한 장병 그리고 연평도 주민께 삼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보냅니다. 2010년 3월 전안함 침몰 북한 공격 사태에서 46명의 우리 귀한 자녀가 희생된 후 수개월만에 재발된 북한의 만행에 서북미지역 15만 동포사회를 대표하여 양한 인회에서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11월22일 북한의 김정일 세습군사독재집단은 2010년 11월 23일 서해상의 북방경제선(NLL)을 넘어 연평도를 포격하였다. 이 포격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군과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이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전쟁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적 공격행위는 김정일 세습군사독재집단이 북한 동포의 생활수준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일 일가의 독재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이유가 없는 범죄집단이란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북한의 김정일 세습군사독재집단은 국제사회에 성실한 일원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해탈함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독재집단의 이런 무력시위에 대한민국이나 자유세계가 굴복할 것으로 김정일이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압박만 가중되어 자신들의 권력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은 절대로 북한의 세습군사독재집단의 이러한 무모한 군사도발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무리한 군사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규탄한다. 군사도발은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군사적 협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다시 한번 사죄하고 우리 남부한의 평화 통일을 이루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이 될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한 동맹이었음을 자랑한다. 그러나 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방어적이어서 오히려 북한을 김정일 일가의 영역으로 만드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북한으로의 자유의 확산을 위한 공세적 동맹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3. 아울러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세계 시민들에게 촉구한다. 이곳이 어려움에 처한 면 도와주는 것이 인지도이다. 북한 주민이 독재자의 인권탄압으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자유시민은 북한 주민을 도와 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북한에서 독재자를 몰아내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자.
4. 대한민국이 이제 G20 정상회담을 유치한 선진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한 민족으로써 미국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국내외 지역에 친부 세력이 있다면 이번기회에 모두 반성하는 기회로 더이상 남북간의 갈등을 갖지않도록 친북과 세력은 그 활동을 즉각 중단할것을 권장 한다. 세상에 태어나서 반역질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닌가? 이제 반역행위를 멈추고 평상심을 되찾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을 위하여 합심 단결하여 다같이 충성하기 바란다.
5. 여기서 우리한인동포사회에서도 우리조국의 비상상태에 좀더 적극적으로 희생자들을 도울수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동포 모두가 분열보다 화합으로 우리의 성명서 규탄 목소리를 북녘땅에 들리수있도록 인터넷또는 여러 방법으로 규탄 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또다시 우리조국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15만 우리 동포의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높이는 데 다함께 동참 합시다.

2010년 11월25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이광술 이사장 임광희 외 임원 이사 일동
워싱턴주 타코마 한인회
회장 장석태 이사장 이정옥 외 임원 이사 일동



성명서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한인동포들은 남과 북이 침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항상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북한에서 우리 친안함을 무자비하게 공격함으로써 대한의 건아들이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한 채 장렬하게 산화 하였습니다.

분단 반세기 동안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번도 사과한적인 없는 범죄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3대에 걸친 권력세습으로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개인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면서 아들에게 또다시 대물림을 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세습 왕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바, 우리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이를 주목해야 하며 당당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의 원칙"하에 북한을 도와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 동포들도 힘을 합쳐 2,400만 북한주민에게 동포애를 전하면서 희망의 씨앗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규탄하며, 북녘 땅에서 기아에 허덕이며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북한동포들을 위해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중북 좌파세력들도 이제는 정진차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현명한 자세를 갖기를 촉구한다.

다시한번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는 지역사회 동포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규탄 성명서를 국내외 7000만 동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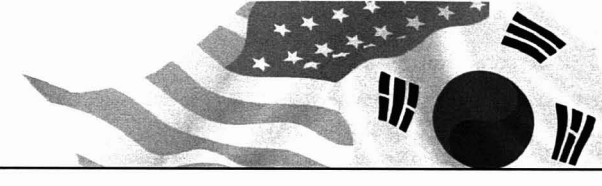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이광술 회장 및 임광희 이사장 외 임원 이사 일동



2010년 1/1 to 10/31 기부자 명단



Name	Amount	Name	Amount
이광술 회장	\$5,050	김용규 호남향우회 회장	\$300
주시애틀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5,000	곽종세 전직회장	\$300
익명	\$4,000	도정숙	\$300
임광희 이사장	\$4,350	리나조	\$300
백봉현 명예고문	\$2,000	서북미 충청향우회	\$300
홍성권, 홍지나	\$1,630	성유영	\$300
서용환 수석부회장	\$1,500	시애틀 한미여성회	\$300
이종화 청우재단 회장	\$1,500	이용일	\$300
허명 명예고문	\$1,300	장부관	\$300
한정열	\$1,215	장옥현	\$300
타코마 한인회	\$1,200	재미 한국학교 서북미지역 협의회	\$300
최훈 명예고문	\$1,100	최화섭 미주총연 서북미연합회 회장	\$300
Center Bank	\$1,000	한한나	\$300
PI Bank	\$1,000	여성부동산협회	\$250
UNI Bank	\$1,000	박태호 전직회장, 고문	\$240
신제너 부회장	\$1,000	KAC (Korean American Coalition)	\$200
익명	\$1,000	Snohomish 한미노인회	\$200
익명	\$1,000	김건영	\$200
조성욱 전직회장, 고문	\$1,000	김에스더	\$200
이민구 명예고문, 한미식품 사장	\$1,000	김정금	\$200
김기현 명예회장	\$864	남해진 CBMC Bellevue 회장	\$200
도정봉 영사	\$800	남희숙	\$200
이윤정	\$650	대한부인회	\$200
신호범 전직회장, 주상원의원	\$550	박보경 대한부인회 회장	\$200
주호연 Tokyo Japanese Steak House 사장	\$500	박재동	\$200
김승애	\$500	상공회의소	\$200
축구협회장 박태수의 회원일동	\$500	서북미 한인연합회	\$200
김은영	\$450	세탁협회	\$200
서북미 한미여성회	\$450	신윤식	\$200
하나비 식당	\$450	워싱턴주 한인 원로골프회 일동	\$200
홍정자 한인회 Federal Way 지회장	\$400	유상재 워싱턴주 체육회장	\$200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 시애틀(서북미) 협의회	\$350	유홍근 보이스트림 회장	\$200
전은주 한인회 Bellevue 지회장	\$350	이준성 서북미 연합회 전직회장	\$200
최영자 총무이사	\$350	전통설령탕	\$200
김학병 원로골프회 회장	\$305	최기선 재미한글학교 서북미 협의회 전직회장	\$200
Park, Joann	\$300	홍승주 독도 홍보위원장	\$200
McMillin Building Properties	\$300	김순아 KAC 이사장	\$150
Seattle & Bellevue 통합 한글학교	\$300	정철식 전직회장	\$150
Yang, James	\$300	주완식	\$130
강석동 전직회장	\$300	이병준	\$105



2010년 1/1 to 10/31 기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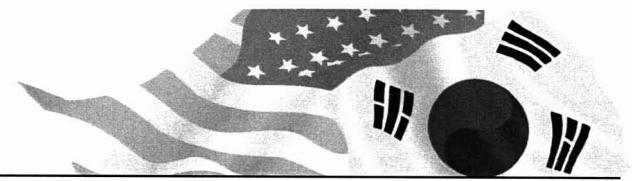


Name	Amount	Name	Amount
Bellevue CBMC 회원 일동	\$100	Byeon, Seong Gyeong	\$20
Choung, Seung Jin	\$100	Choi, Yonmi	\$20
Wilson, Ok Sun	\$100	Hong, Ki J	\$20
고종제 KOAM TV 사장	\$100	Kim, Simone	\$20
권 정 CBMC Seattle 회장	\$100	Lee, Jin Ah	\$20
권정아	\$100	Lee, Sam	\$20
김덕신	\$100	Park, Ki R	\$20
김종호	\$100	Rhee, Michael & Kyung	\$20
김혜전, 김준배 전직회장	\$100	Shin, Hyun	\$20
김태강 한글학교 이사장	\$100	Shin, Sung Hoon	\$20
박서경 Idaho 전직회장	\$100	Son, Jessica	\$20
박양숙	\$100	강은선	\$20
엄도승 한인회 전 이사장	\$100	김병용	\$20
오계희 전직회장	\$100	도춘덕	\$20
윤부원 전 생활상담소장	\$100	백점등	\$20
이영조 전직회장, 평통회장	\$100	신원한	\$20
이원섭 통합한글학교 이사장	\$100	이순자	\$20
홍성우 라디오한국 전무	\$100	이영조 (Young Cho Lee)	\$20
홍경선	\$75	정금현	\$20
이헬렌	\$70	정상균 행복노인회 회장	\$20
조경희	\$70	최인범	\$20
김삼목	\$65	무명	\$6,020
박영민	\$65	총계	\$65,404
이수잔 상공회의소 회장	\$65		
이화자	\$65		
전문홍	\$65		
한수지	\$65		
홍윤선 상공회의소 이사장	\$65		
홍지연	\$65		
이유식 이북 5도민 회장	\$60		
이은희	\$50		
이종익 CBMC Federal Way 전 회장	\$50		
정애연	\$50		
정예민	\$50		
정은진	\$50		
조재환, 조경희 서북미 충청향우회 전 회장	\$50		
한호정 시애틀 한미여성회 회장	\$50		
장현식	\$40		
Abye 식당	\$20		
Bae Jung G.	\$20		

상품권

H-Mart	\$1,500
팔도식품	\$1,000
신성식당	\$200
장현식 (대추, 매실액기스)	\$200
Akasaka	\$100
가든식당	\$80
아시아나 항공-round trip to Korea	1 ticket
대한항공-round trip to Korea	1 ticket

대단히 감사합니다.



ResCare HomeCare (구) 암스트롱
 Respect and Care at Home **Armstrong**

레스케어(구 암스트롱)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재택 간병 서비스

전문적으로 훈련된 간병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저 소득층 미정부 보조하에 무료서비스 제공/한국말 서비스/주중/저녁/주말
 개인 부담시 본인의 기호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

- ▶ 식사준비보조 ▶ 위생/외모보조 ▶ 개인가사보조 ▶ 쇼핑 ▶ 세탁 ▶ 목욕
- ▶ 의복착용보조 ▶ 거동보조 ▶ 교통보조/병원방문차량제공



앤젤라 김 (425)248-2282 복지상담 및 마켓팅 매니저
 민영숙 리드수퍼바이저 253-584-2619 타코마
 김민영 수퍼바이저 253-582-0507 타코마
 장인숙 수퍼바이저 253-284-2945 타코마
 이티나 수퍼바이저 425-248-2210 린우드
 이수희 수퍼바이저 253-529-0725 페더럴웨이
 이완희 수퍼바이저 206-329-4655 Ed 1026 시애틀

무료전화 1-888-329-4695
 www.rescarehomecare.com

린우드 T(425) 248-2281 F(425)248-2283 18009 Hwy 99, Suite D Lynnwood, WA 98037
 시애틀 T(206) 329-4695 F(206)329-0275 4714 Rainier Ave S. Suite 104 Seattle, WA 98118
 페더럴웨이 T((253)946-6965 F((253)946-7685 34709 9th Ave S. Suite 600 Federal Way, WA 98003
 켄트 T(253) 850-6415 F(253)850-6392 26404 104th Ave SE. Suite 100 Kent, WA 98030
 타코마 T(253) 584-2311 F(253)584-2235 9321 South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올림피아 T(360) 570-8000 F(360)236-8454 2101 4th Ave E. Suite 103 Olympia, WA 98506

김호순 공인회계사

“이런 공인 회계사를 찾으십니까?”

정확하고 만족 할만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정 급할때 만나서 자세하게 상의도 하고,
 어려울때 시원하게 대화도 나누고,
 고객을 대변해 주는 그런 CPA를...
 작은것도 충실하게 생각하는 것,
 그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 고객을
 기쁘게 해 드린다고 믿습니다.



272th St. N I-5 Exit 147
 Pacific Hwy S. 288th St.
 미액 Bank의 같은 건물 Texaco 312th St.
 H Mart I-5 Exit 143
 320th St. S Seatac mall

김호순 공인회계사
 Danielle H.S. Kim, CPA
 1988 UW 회계학 전공(세정학 부전공) 졸업
 1989 Peal Marwick, Guam
 1990 Simpson & Simpson, CPAS, Los Angeles
 AICPA Member, WSCPA Member

(253)839-9301 (253)839-0890(Fax) 28815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기든식당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기든식당
 축 개업 2주년 행사

오향족발 + 파전 + 한국주류
 (2-3인분) \$35



요일별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저렴한 스테이크 \$4.99

- 월 목계장, 건강비빔밥, 카레라이스
- 화 닭도리탕, 옛날국수, 닭장찌개
- 고기만두, 통만두
- 수 갈비우거지탕, 순두부
- 목 마로국밥, 비지찌개, 순두부
- 금 만두국

연말연시 모임 및 단체손님 환영
 연회석 (50명이상수용가능) 준비
 케더링 문의 환영 / 노래방 시설

1636 S 312th St, Federal Way, WA 98003 Tel. 253-941-2483

UniBank for Hope & Dream

불경기 + 겨울 = 위기? 기회? \$

오늘! 여러분의 사업을 키워나갈 절호의 기회를 잡으세요.
 유니뱅크가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니뱅크에서 SBA 대출시,
 - 유니뱅크 자체승인으로 신속한 대출 가능
 - 소규모 대출도 적극 지원함

지금! 유니뱅크로 연락하십시오.

[채용안내] 최고등급 은행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CD, Money Market, ■ 위생 관리 190@unibank.com
 ■ 국가장이 및 공공기관 고객 서비스 지원 ■ 워싱턴주 16929 Hwy 99 Ste 110,
 ■ 고객지원 24시간 가능, 유망한 우리 기업에서 함께 ■ Lynnwood, WA 98037
 ■ 지원대상: 각종 무역거래, 무역 관련 서비스 ■ 문의전화 425-275-9700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 온라인 자동이체
- 무료 Bill Pay
- 무료 채팅 계좌
- 목돈 만들기 - 정기 저축
- 목돈 굴리기 - CD, MMA
- 국제 송금 및 무역 관련 업무
- 상업용자
- SBA 융자/USDA 융자

상담 전화
 425-275-9700

UniBank
 고객의 성공 유니의 보람

Fax: 425-275-9777
 www.unibankusa.com
 16929 Hwy 99 Ste #110, Lynnwood, WA 98037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오전 9:00-오후 1:00)

남대문가든
 South Gate Garden

한국식 전문

Korean B.B.Q

예약 문의 전화 Tel: 425-603-9292
 ADDRESS: 3703 150th Ave. SE, Bellevue, WA 98006

화이트싸인

외부간판, 네온싸인, 메뉴보드
 윈도우 그래픽, 간판수리

E-mail: bestsign911@yahoo.com

Tel. 425-745-0760
 15107 Hwy. 99 #A, Lynnwood, WA 98037

구이전문점
 "재료가 다르면
 맛과 영양이
 다릅니다"

신성

가격파괴의
 넉넉한 인심을
 느껴보세요

전치 스페셜 \$4.99
 월~금
 (11-31)
 갈비우거지탕
 웰빙비빔밥
 된장찌개
 육개장
 갈비탕
 순두부
 설렁탕

건강 쌈밥 \$6.99
 월~금
 불고기
 돼지불고기
 고등어
 3가지 중에 선택

하루종일 All You Can Eat!
무제한 BBQ \$9.99
 삼겹살 + 차돌배기
 무제한 스페셜을 드시는 분께 맛보기 냉면 \$3.99에 드립니다

Tel. (253) 839-9292 1805 S. 316th St. Federal Way, WA 98003

항공권 전문 여행사
탑 항공 여행사

편리한 예약에서 합리적인 가격까지

[제주 2박 3일] 교포를 위한 특별가
 한국 관광 5박 6일
 미서부 5박 6일
 미동부 4박 5일
 서부 3대 캐년 관광

한국행 특별가

T. 425.640.2410 / 206.706.5506
 18421 Hwy 99, Suite F, Lynnwood, WA 98037



KOBE

KOBE WELL-BEING TONKATSU



**KOBE WELL
 Tonkatsu & Sushi & Rolls**
ORDER TO GO & DELIVERY & CATERING
 850 110th Ave., NE, Bellevue, WA 98004
 Free Parking (In Marriott Hotel)
Tel: (425) 451-3888
 (린우드 한인몰 미트 네)

facebook.com
 kobe sushi bar restaurant

21세기를 선도하는 최고의 물류기업

현대택배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택배사 랭킹 1위 현대택배가 교민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물품을 보내면 픽업에서 배송까지 2~3일 안에 배달되는 시스템으로 우체국이나 다른 운송회사보다도 훨씬 저렴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한국으로 소포 및 서류 등의 작은 부피부터 유학생의 귀국 이삿짐까지 배송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는 특별 할인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무료픽업

고객 감동을 위한 최고의 도약
현대택배주식회사
 HYUNDAI EXPRESS SEATTLE
1-866-305-9835

오레곤 지점
503-941-5822
 14700 SW Beard Rd
 Beaverton, OR

켄트 켄트 비디오 253)813-0614 23812 104th Ave. SE. Kent, WA	린우드 팔도비디오 팔도월드 2층 425)742-4868 17424 Hwy 99 #233 Lynnwood, WA	페더럴웨이 우아미 종합화장품 팔도월드 내 253)839-2533 2200 S. 320th St. Suite B-204 Federal Way, WA	타코마 드봉종합화장품 팔도월드 내 253)581-9485 Tacoma 9601 S. Tacoma Way 109 Lakewood, WA
타코마 미로 카페(황도갑국수 옆) 253)584-0999 3615 Steilacoom Blvd Suite#101 Lakewood, WA 98499	에드몬드 아가페서적/문구 Edmonds 부관식물 옆 425)744-1114 22618 HWY99 N #112 Edmonds, WA 98026	U-District Yunnie Bubble Tea 206)547-9648 4511 university Way NE Seattle, WA 98105	벨뷰 Factoria Bakker's Fine Dry Cleaning (Peking, Lotte미용실 옆) 425)647-0611 12816 SE 38th ST #D Bellevue, WA 98006



泰和閣 Tai Ho Restaurant

Mandarin Cuisine / Cocktail Lounge
 SPECIALIZE IN HAND-PULL NOODLES

Open 7 Days A Week
 6312 Bothell Way NE, Kenmore, WA 98028
Tel: (425) 485-4020
 www.taihorestaurant.com



워싱턴 정상물류 253-872-8181

**귀국이사
 자동차 운송
 전문업체**



항공운송
 국내외 항공로부터 의뢰받은 각종 수출입화물들에 대해 수출입 절차에 따른 수출입운송, 보세운송, 통관, SEA & AIR, 콘솔업무, 국제B2C수출운송 등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걸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180여개 포워더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원활한 수출입물 선적을 위해 80여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콘테이너 화물, Bulk 화물, 각종 프로젝트 화물 등 다양한 형태의 화물 운송과 첨단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조직을 갖추고 화주의 Needs에 부합하는 일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024 64th Ave. S. Kent, WA 98032



北京 PEKING

Chinese Restaurant
 7 Day's a week

www.peking.bite2g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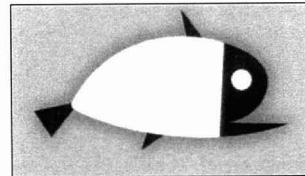


Szechuan • Hunan Mandarin Cuisine

16857 Redmond Way • Redmond, WA 98052
 (Next to McDonald)

☎ 425-883-2681 Fax: 425-883-0204

BLUE GINGER



Korean Grill & Sushi

Tel 425-746-1222
 Fax 425-747-4215
www.bluegingerbellevue.com

14045 NE 20th St. Bellevue, WA 98007



Tel 425-453-0100
 Fax 425-453-0112
www.sushimarubellevue.com

205 105th Ave. NE Bellevue, WA 98004

BUSINESS/COMMERCIAL INSURANCE:
 Business/Commercial/Commercial Auto/Worker's Compensation/Surety Bonds
PERSONAL INSURANCE:
 Auto/Home/Life/Health

WE'VE GOT YOU COVERED.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그럼, 더욱 더 PIA total 서비스 보험을 찾아주십시오.

신속한 서비스, 맞춤형된 커버리지와 저렴한 보험료로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유명 Major 회사들과 함께 일합니다.



전 미국 최고의 보험회사로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 든든한 사업관계
- 맞춤형된 커버리지
- 성장형 커버리지
- 클레임 서비스 전담 직원
- 안정성과 전문지식
- 비즈니스와 종업원들을 위한 추가보호

올바른 보험 대리인을 선택하는데
 시간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입니다.

Surety Bonds

모게지 라이선스, 변호사, Contract Bid and Performance, City & County License & Permit, Court, Dishonesty or Janitorial Service, Electrician, ERISA/Pension/Profit Sharing, Insurance Broker, Notary, Probate or Fiduciary, Public Official, CPA, Account, Two Truck Operator, Auto Wrecker, Motor Vehicle Dealer etc.

상업보험 전문:	호텔/모텔 상가 건물 자동차 바다 & 정비	그로서리 식품/마켓 상업법치	세탁소 교회 보험 회사 임원(D&O)	못가게 각종 비즈니스 고용 관련 책임 보험(EPL)	화장품 Surety Bonds 정비 고장 보험	식당 화물/상용차량 종업원 상해 보상 보험
개인 보험:	집보험	자동차 보험	오토바이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SR-22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We Make Insurance Simple, Fast & Efficient!

본사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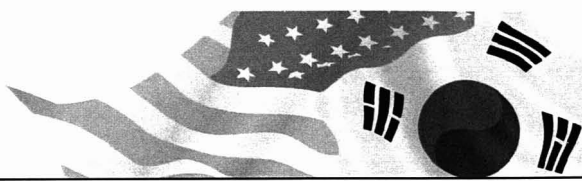
Tel: 253-946-4224
 Fax: 253-946-4071
 2016 South 320th St. Suite N
 Federal Way, WA 98003

Los Angeles Office

Tel: 323-378-6213
 Fax: 323-378-6263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Las Vegas Office

Tel: 702-685-3118/9
 Fax: 702-685-3120
 5020 W. Spring Mtn. RD. Suite 5
 Las Vegas, NV 89146



전통 일식의 맛이 살아있는 전문 일식점

아카사카

항상 신선한 일식요리를
정성을 다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OPEN HOUR
M-F 11:00-10:00
Sat 12:00-11:00
Sun 3:00-10:00

Tel: 253-946-3858
 31246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스시 / 사시미 / 샐러드
 바베큐 그릴 / 스시바
 바베큐 다다미방
 살아있는 생선(제철 새우)
 매운탕




Mu Kung Hwa Oriental Foods

We put Our Heart and Soul in Making Traditional Rice Cake

맛과 정성을 다하는
무궁화 떡집

갑제옹 떡 / 해시떡 / 백이떡 / 돌떡
 약호 떡 / 곁꿀떡 / 떡케이크 / 율빙떡 / 케리링

121 131st ST S, Tacoma, WA 98444
 T 253.536.6857 / F 253.536.5365



이솝(2SOP)

서북미 한인사회에 양념과도 같은 음악을 이야기 하고 싶다는 이솝

이솝은 라디오 한국의 서정자 사장이 기획, 연출한 “오 쇼쇼쇼”에 출연하면서 한인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 쇼쇼쇼” 공연이 끝난 직후 서정자 사장의 특별한 안목과 배려로 라디오 한국의 간판프로 “오후의 희망가요”를 “이솝의 오쇼”란 타이틀로 방송하면서 독특한 진행과 말솜씨, 그리고 라이브 까지 펼치며 외롭고 허전한 한인사회의 애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더욱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았게 되었다. 누구보다 한인 여러분의 아픔을 알기에 노래로 그 아픔을 달래드리고 싶다는 이솝의 이쁜 마음처럼 분명 이솝은 우리 서북미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런 그가 “제43주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아리랑의 밤”에 사회자로 나선다. 물론 노래도 들려준다. 이솝은 한국 가요계의 한 장르인 성인취향 음악의 아티스트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 그의 음악을 통해 한인사회의 시대와 세대를 건너뛰는 또 다른 뭔가 하나의 제안을 받는 듯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사를 빛내줄 이솝을 주목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솝 2SOP
 첫번째 이야기: 한생 [漢生]

Cell: 206.817.6269 TEL: 425.577.8101
 Email: ausaconstruction@gmail.com

정직과 신용 그리고 최고의 기술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 USA

General Construction
 LICENSED / BONDED / INSURED

종합건축 전문회사
 워싱턴 주 공인허가업체
 www.ausaconstruction.net
 http://cafe.daum.net/seattlehome

신축 / 중축 / 개축 / 리모델링 /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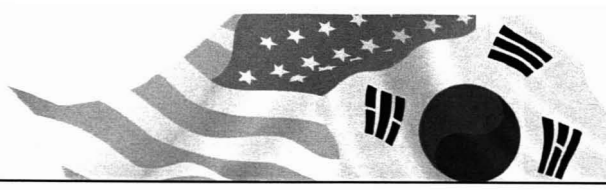
주택
상가
식당
오피스
교회
아파트/콘도
호텔/모텔

아스팔트
지붕
페인팅
전기
플러밍
사이드
플로어
주방/욕실
데크/펜스
조경/카펫

One call does it all!
 High Quality warranty
 무료 견적 서비스

전문기술인 책임시공과 하자보증






궁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장인 손맛으로
소중한 고객을 위한.

주메뉴
 Korean BBQ, 갈비, 돼지고기, 순두부찌개,
 전골, 각종 생선구이 등 한식 일절

Tel. 253-529-2242

31550 20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궁은 겉치레나 허풍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궁은 오직 소중한 고객을 위해 서비스하겠습니다.

토방 Korean BBQ

Tobang Korean Cuisine Restaurant

토방 추천음식



청진동 따귀 선지해장국
청진동 따귀 우거지방
족발보쌈
흑염소
막창볶음
양ضل기, 미노구이
월매 보쌈



홈타운 플라자 내
 33324 Pacific Hwy. S. #203
 Federal Way, WA 98003
253-874-8888
 Sun.-Thu.: 11AM~10PM
 Fri.-Sat.: 11AM~11PM

일식전문점

광어 / 활어회

하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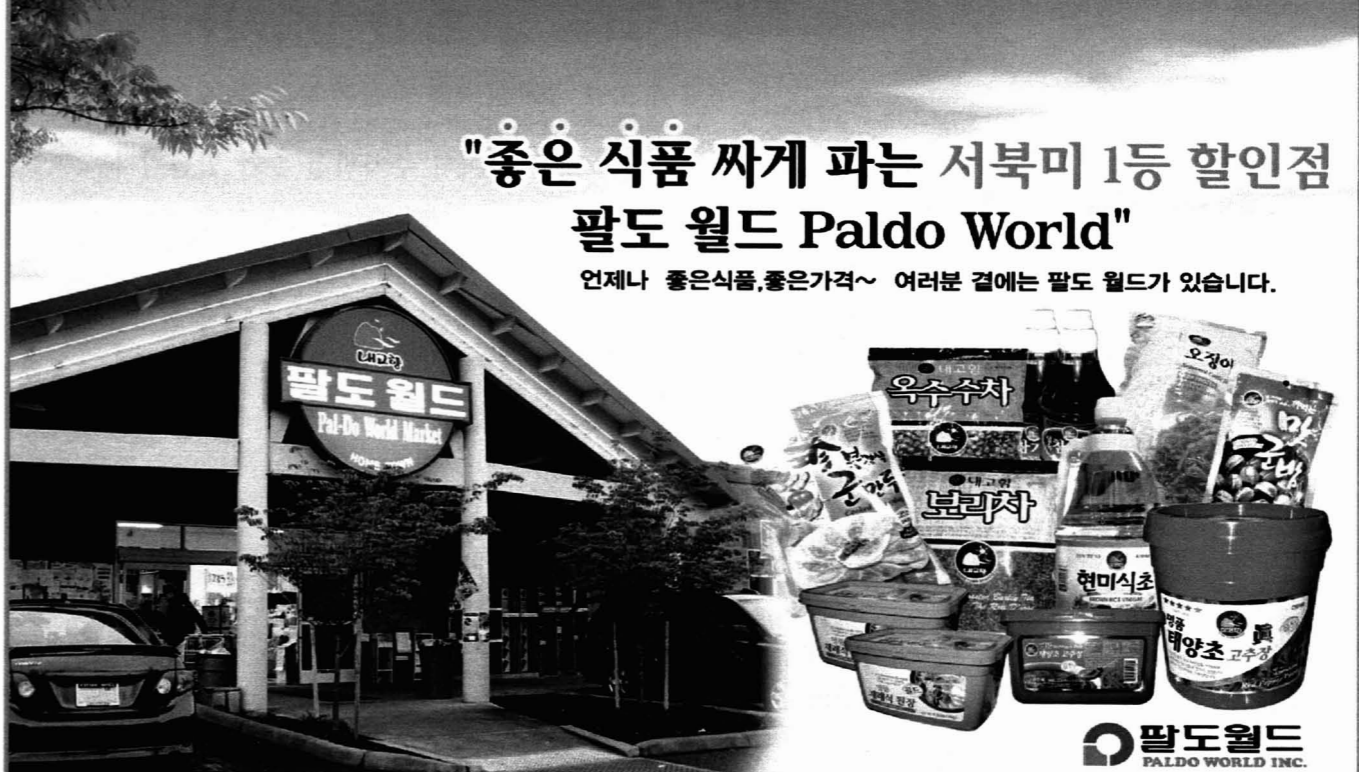
T. 253-941-0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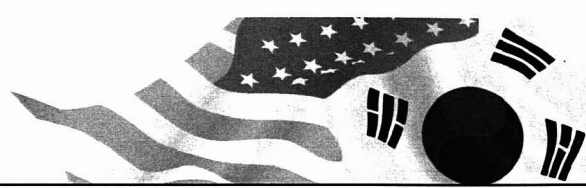
31260 Pacific Hwy S. #12, Federal Way, WA 98003

"좋은 식품 싸게 파는 서북미 1등 할인점 팔도 월드 Paldo World"

언제나 좋은식품, 좋은가격~ 여러분 곁에는 팔도 월드가 있습니다.



팔도월드
 PALDO WORLD INC.



주 시애틀 총영사관 안내

관할구역: 서북미에 위치한 5개주(워싱턴주, 오레곤주, 알래스카주, 아이다호주, 몬타나주)

여권(1), 비자, 호적, 국적(3), 재외국민등록, 병역, 증명 발행 등(2)
 직원내선 번호 안내(4), 총영사관 위치 및 길 안내(5)

찾아오시는 길

◆ 북쪽에서 오시는 방법

I-5 남쪽방향→Exit 166번 Denny Way로 나옴→Stewart St.로 직진→6th Ave에서 우회전→좌측으로 Westin 호텔(2개의 원형 빌딩)을 지난후 다음 블럭 좌측에 위치함.

◆ 남쪽에서 오시는 방법

I-5 북쪽방향→Exit 165번(Seneca St.)으로 나옴→6th Ave에서 우회전→좌측으로 Westin 호텔(2개의 원형빌딩)을 지난후 다음 블럭 좌측에 위치함.

◆ 동쪽에서 오시는 방법

I-90 서쪽방향→I-5 North 방향 진입→Madison St.(I-5 진입후 2번째 출구)로 나옴→Madison St.에서 좌회전→6th Ave에서 우회전→좌측으로 Westin 호텔(2개의 원형빌딩)을 지난후 다음 블럭 좌측에 위치함.

주차안내: - 총영사관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빌딩에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Lenora Steet에서 5th Avenue로 좌회전 하신 후, 왼쪽에 위치한 첫번째 주차빌딩입니다. 지정주차공간(Reserved Parking)으로 표시된 자리 외에 아무 곳이나 주차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0~30분: \$3
- o 30분~1시간: \$5
- o 추가 시간: 1시간당 \$3
- * 3층으로 올라오시면 총영사관이 위치한 건물을 진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총영사관 주변에 길거리 주차(Street Parking)도 가능합니다. 주차요금은 1시간당 \$2.50이며 최대한 2시간 동안 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206-441-1011/4
 사건 사고용 비상전화: 1-866-788-0404(영사영사)
 공관 E-mail: koreanconsulate@yahoo.com
 Fax: 206-441-7912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033 6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웹 주소: http://usa-seattle.mofat.go.kr

“오늘, 비즈니스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 비즈니스’ 시작이라는 오랜 꿈을 향해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오신 당신께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루신 작은 꿈이 더 큰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차곡차곡 꿈을 저축해 오신 고객님께 중앙은행도 SBA 용자로 힘을 더해 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이 꿈을 이루어 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20년 경력의 중앙은행 SBA 용자전문팀이 개런티 수수료 없이 쉽고 빠르게 용자를 도와드립니다.

중앙은행이
 세상의 건강한 꿈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은행, 중앙은행



린우드 지점 Tel. 425-743-7777 | 페더럴웨이 지점 Tel. 253-946-5555 | 시애틀 SBA LOAN CENTER Tel. 206-727-2222
 17410 Highway 99, #120, Lynnwood, WA 98037 | 31217 Pacific Highway S., #A-101, Federal Way, WA 98003 (하이마트 내) | 2033 6th Ave., Suite 993, Seattle, WA 98121 (영사관 건물내)

"better food better life"

H MART

365
days
Open
08:00AM~09:30PM

Always 언제나 고객과 함께
with you

항상 아이와 약속 하듯이
오직 고객과의 약속만을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H-MART 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또 100년이 지나도
고객만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



Federal Way

Tel. 253.528.0500
31217 Pacific Hwy S, Federal Way, WA 98003



Lynnwood

Lynnwood, 425.776.5845~7
3301 184th St, SW Lynnwood, WA 98037

